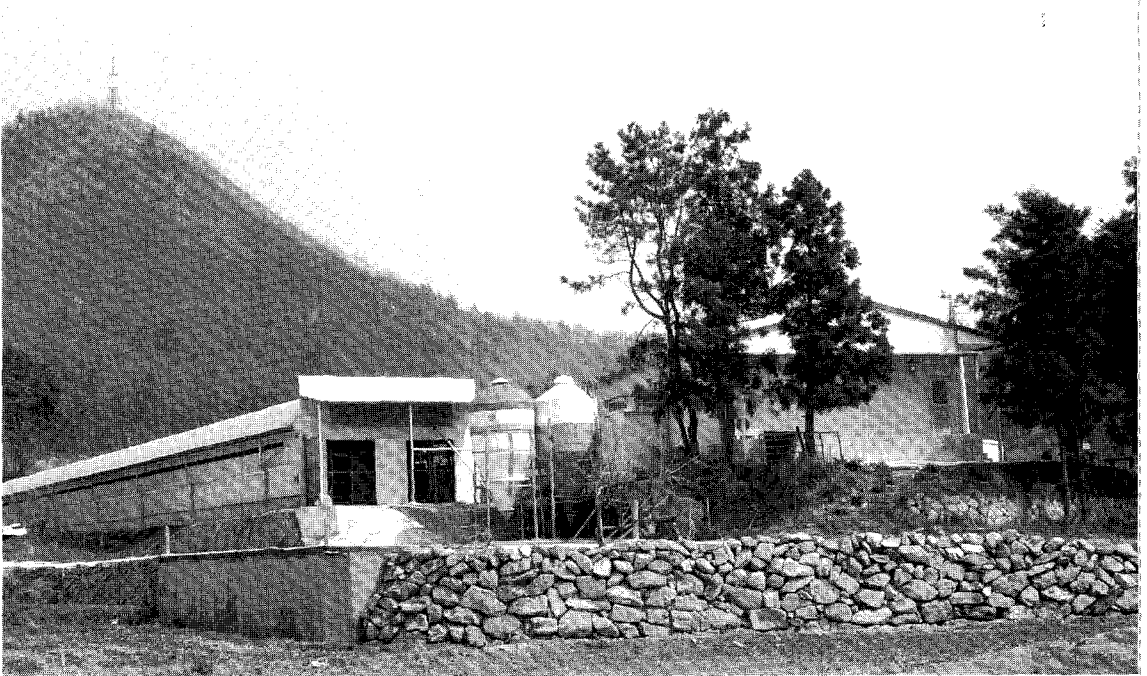


시험농장 검증을 통해 완벽한 제품 공급한다

- 국산 기자재 외국 제품에 전혀 손색없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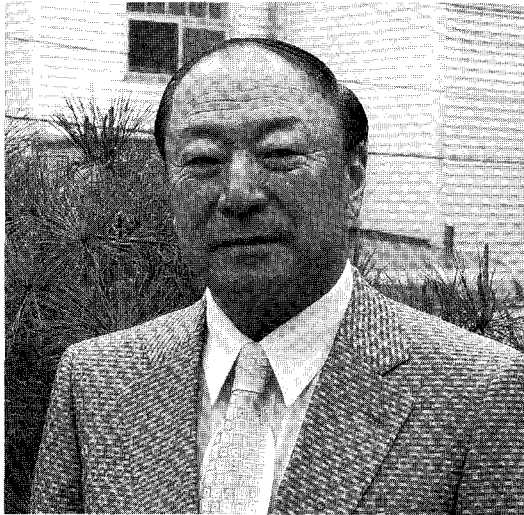
전남 고흥에 자리잡은 성광시스템 시험농장 전경

1980년대말 양계산업이 대형화, 규모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시설들이 대거 수입, 보급되었다. 외중에 국내 기자재 업체들도 자체 개발을 통해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벌여왔으나 국내산이라는 선입견과 외국제품 선호 현상으로 인해 큰 호응을 받아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기자재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는 성능과 기술이 국제 수준과 대등하게 되었고, 외국으로의 수출도 이루어지면서 성능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본고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내 순수기술로 국내 축산자동화에 노력해오고 있는 성광시스템과 시험농장을 찾아 국내 기자재 산업의 현주소를 알아 보았다.

30여년간 국산 기자재 개발, 보급

성광시스템(사장 진은정)은 30여년 동안 현장 경험을 토대로 축산용 자동화 시스템을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농가에 보급해 오고 있는 시설전문업체이다. 성광시스템을 태동시킨 진달만 회장은 1976년 육계 농장(대호농장)을 직접 경영하면서 양계업의 자동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진회장은 사료급이부터 급수 등 사양관리를 하면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자동화를 위한 실험과 연구에 들어간 것이 지금의 (주)성광시스템을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다. 당시 개



꼬꼬급이기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 기자재 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진달만 회장

발한 것이 원형자동급이기인 “꼬꼬급이기”이다. 1979년 꼬꼬상사를 설립하고 “양계용자동급이기”를 탄생시키면서 농가에 보급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사료허실 방지와 사료급이의 혁신을 부르며, 전국적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이후 성과와 효과를 증대시켜 외국제품과 대등한 급이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함으로써 국내 자동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진회장은 산란계, 육계, 종계에 이르기까지 사양가 측면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으며, 자동급이기에 이어 디스크식 산란급이기, 양계 볼납플, 종계 평사용 채널 급이시스템, 속도조절 950A 휠 개발 등 외국제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제품의 우수성을 높이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외국수출을 통해 국내 제품 우수성 홍보

마침내 성광의 기술이 외국에까지 알려지면서

1998년 나이지리아에 양계용 원형 급수기가 수출되었으며, 2001년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산란 케이지용 토탈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국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일본 수출 당시 외국제품 못지않은 납플의 성능을 인정받으면서 2년 동안 수출이 꾸준히 이어졌던 경험도 있다. 북한에도 종계장에 성광제품이 지원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원형급수기는 홍콩 등을 통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지역에 까지 인기리에 판매가되는 주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환기팬도 태국으로의 수출이 활발하며,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01년 최우수 기자재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면서 공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성광시스템은 1995년에 인천시 남동공단에 자체 제품 전시장을 개관한데 이어 지난 2003년에는 전남 고흥에 산란계 시범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성광에서 개발한 자체 제품의 실험과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범농장 운영으로 검증된 제품 제공

진회장은 검증되지 않는 제품은 절대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품의 성능을 실험하고 검증작업을 거쳐가기 위해 여러해 전부터 시험농장을 준비하던 중 마침내 지난 2003년 5월 고흥인 전남 고흥에 2만수 규모의 산란계농장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전남 지역은 광주지역에 밀집되어 있던 양계장들이 도시화에 밀려 보성, 고흥, 순천 등으로 밀려가는 추세를 보이면서 청정지역이면서도 입지조건이 좋은 고흥에 시범농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본사는 진은정 사장에게 실무를 인계하고 농장장은 본사에서 영업을 근무를 하던 이철진 현식 씨가 책임을 지고 농장관리 및 제품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진현식 씨에 따르면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유명제품의 유사 제품들이 시판되어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이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우수하고 완벽한 제품 생산을 위해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친환경을 지향한 농장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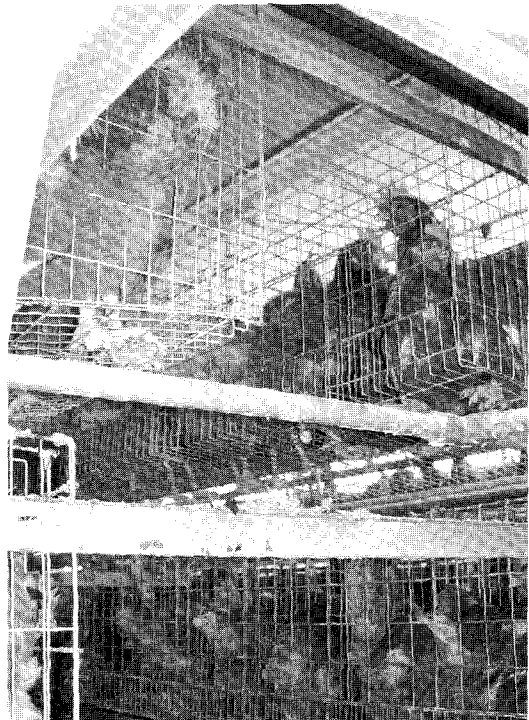
전남 광주에서도 승용차로 3시간 정도 들어가는 해안가. 거문도와 소록도가 보이는 지역인 전북 고흥군 도양읍(녹동)에 위치한 시험농장에는 이미 소식을 듣고 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가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2만수 규모의 소규모 농장이지만 순수 국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현장을 보기 위해서다.

시험농장은 A동과 B동에서 각각 1만수씩 사육되어지고 있다. A동은 기존 건물에 케이지부터 환기시설까지 국내에서 제작된 성광제품 위주로 시설이 되어 있으며, B동은 기존의 케이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환기시설 등 일부를 보완하여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5월부터 설치를 시작해 이듬해인 2004년 5월 B동에 처음 계군을 입식하였고, 전면 시설을 바꾼 A동에는 지난 2004년 8월에 사육을 시작하였다. 현재 A동은 52주에 92%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으며, B동은 60주령에 83%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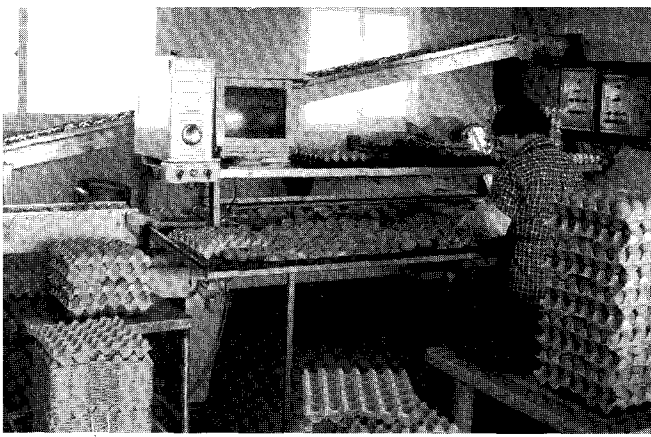
성광시험농장은 앞으로 10년 이후를 내다본 토



탈 사양관리 시스템을 준비해 가고 있다. 농장의 특징은 직립식 보다는 A형 케이지를 고집하였고, 케이지와의 간격을 충분히 떼어놓는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반 무창계사형식으로 환을 계사 후방에 설치해 시원하게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특히 중앙식 진공청소기를 통해 계사내 먼지를 깨끗이 없앨 수 있는 제품 실험도 한창이다. 이 제품은 이미 검증이 마무리



3단 케이지로 맨 위단 공간을 충분히 두어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품질 좋은 계란 생산현장

국내 여건에 최적

시범농장의 급이시스템은 급이기가 링크식으로 사료를 빠르게 공급되고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으며, 급이관리도 소량을 여러번 자주 줌으로써 사료효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불넙플을 설치함으로써 시중에 출시되어온 1자넙플에서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1자넙플의 경우 일부제품은 수관을 통해 이물질이 걸려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한쪽으로 물이 새 나오면서 사료나 주변을 오염시키기도 하는데 불넙플은 불을 통해 이물질이 끼거나 막힐 염려가 없으며, 물이 새는 겨우도 없기 때문에 영구히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장장에 따르면 물로 인한 오염이 없어 한 여름 농장의 위생문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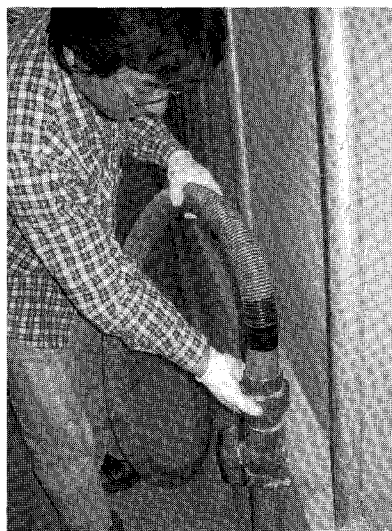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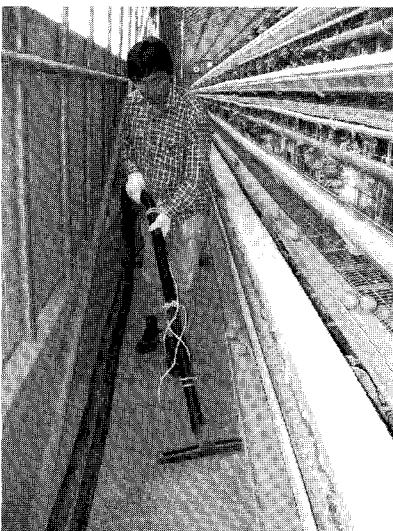
금년 여름 100년만의 더위에 대비해 유창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광에서 개발한 환들을 달아 환기를 하면서 성능을 점검하고 있다. 경영과 영

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한희 부장에 따르면 환은 모터와 환날개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성광에서는 특수재질을 이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실험농장에 지속적인 보완실험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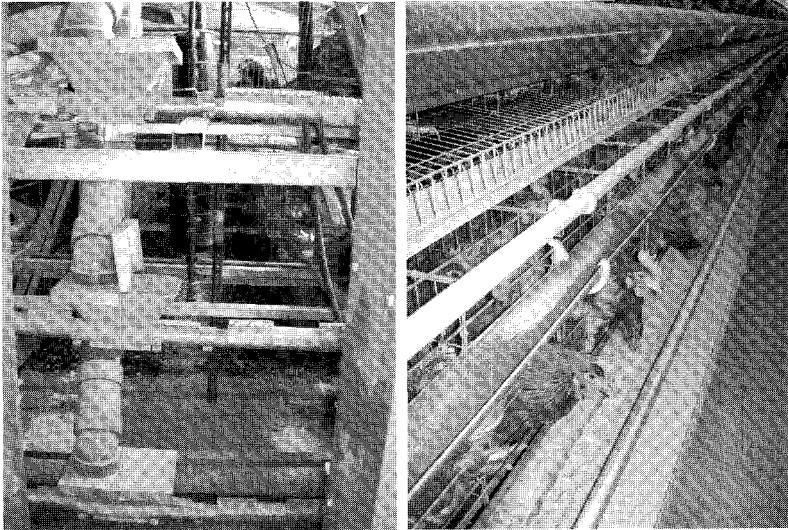
서한희 부장은 국내 제품의 장점은 외국제품과 전혀 차이가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벽한 제품을

단계에 들어서면서 제품출시를 서두르고 있는데, 현재 계사내에는 외부에서 진공 흡입관을 계사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계사내 가운데 부분까지도 설계를 하여 어느곳 이든지 쉽게 먼지를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 농장에서도 1주일만 청소를 하지 않더라도 먼지로 인해 환경이 나빠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개발하게 된 진공청소기는 계사 외부에 집진기를 설치해 소음도 내부에는 전혀 없어 생산성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않는다. 진현식 씨는 최소 1주일에 1번씩은 먼지를 제거하고 있는데 항상 깨끗한 계사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좀더 편리한 방법을 보완하여 농가에 보급이 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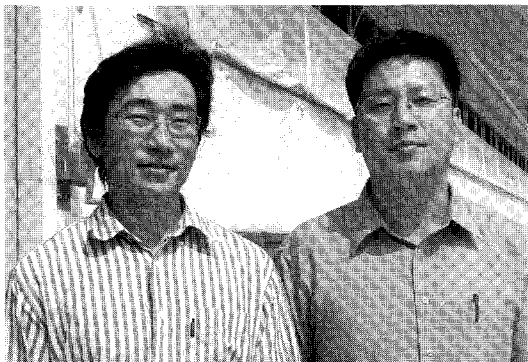


계사내 진공청소기(좌), 흡입구에 연결만 하면 어디든지 청소가 가능하다(우)



계단별로 빠르고 적당하게 사료를 공급한다(좌), 링크식으로 사료를 자주 급이하면서 생산성을 높인다(우).

을 외국제품보다 2/3가격으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 A/S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들고 있다. 성광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본사에 기술, 관리, 생산팀이 있어도 영업팀이 없음을 강조하였는데, 성광은 각 지점에 대리점 형식으로 직영점을 두어 지역적으로 신속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운영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단 직영점에서 손길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시험농장을 통해 농가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진현식 농장장(좌)과 서한희 부장(우)

판매거래처를 두거나 본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국내 어느 농장에도 비상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재양성과 끊임없는 연구

성광시스템 진은정 사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양계 기자재 산업을 이끌어 가는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재 양성을 위해 매진을 해야함을 강조하

였다. 따라서 성광에서는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직원 및 신입사원들을 교육현장으로 연수를 보내거나 직영농장에서 최소 1달동안 실습을 하면서 현장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진달만 회장은 과거 자동화 시설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에 대한 초심의 마음으로 지금도 양계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아틀란타 박람회에서 본 기자와 만났던 진회장은 출품된 기자재들에 대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그 원리와 구조 등에 대해 팜플렛들을 수집하며, 집요하게 파헤쳐 들어갔다. 그러한 응용을 통해 국내 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힘이 발휘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진회장은 성광장 학회를 만들어 고향에 후학들을 지원하는 등 축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사업도 하는 등 주변으로부터 모범이 되고 있다.

취재 | 김동진 홍보팀장
dj@poultry.or.kr

